

발표일 : 2016년 4월 29일

최근 5년간(2011~2015년) 5월 상순에는 동해중부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나, 그 밖의 해상에서는 파고가 낮았음. 중순에는 서해해상과 남해동부해상에서 파고가 낮았으나, 그 밖의 해상에서는 파고가 약간 높았음. 하순에는 전 해상에서 파고가 낮았음.

해양기상

- 최근 5년간(2011~2015년) 5월 상순에는 동해중부(울릉도)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나, 그 밖의 해상인 서해, 남해 및 제주도해상, 동해남부해상에서 파고가 낮았음. 중순에는 남해서부해상(거문도)과 제주도해상(마라도), 동해해상(동해, 울릉도, 포항)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나, 그 밖의 해상인 서해 및 남해동부해상에서 파고는 낮았음. 하순에는 전 해상에서 파고는 낮았음.

※ 해상 정보는 해역별 최근 5년(2011~2015년) 평균 유의파고의 순별 평균값

※ 물결이 낮음(1.0m 미만), 약간 높음(1.0~2.0m 미만), 높음(2.0~3.0m 미만), 매우 높음(3.0m 이상)

- 서해안의 인천은 5월 8일에 947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의 완도는 5월 7일에 408cm, 동해안의 포항은 5월 25일에 41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해양안전

- 본격적인 행락철로 다수 시민이 승선한 여객선, 유·도선 안전운항
- 본격적인 성어기로 출항전 기관 및 선체의 정밀 점검·정비 후 출항
- 짙은 안개로 시야 확보 곤란 및 줄음운항 사고 예방을 위해 출어 및 조업 시 충분히 휴식(견시 철저)
- 1인 조업선은 안전조업을 위해 가급적 선단선 편성
- 침수 및 충돌사고에 특히 주의

어업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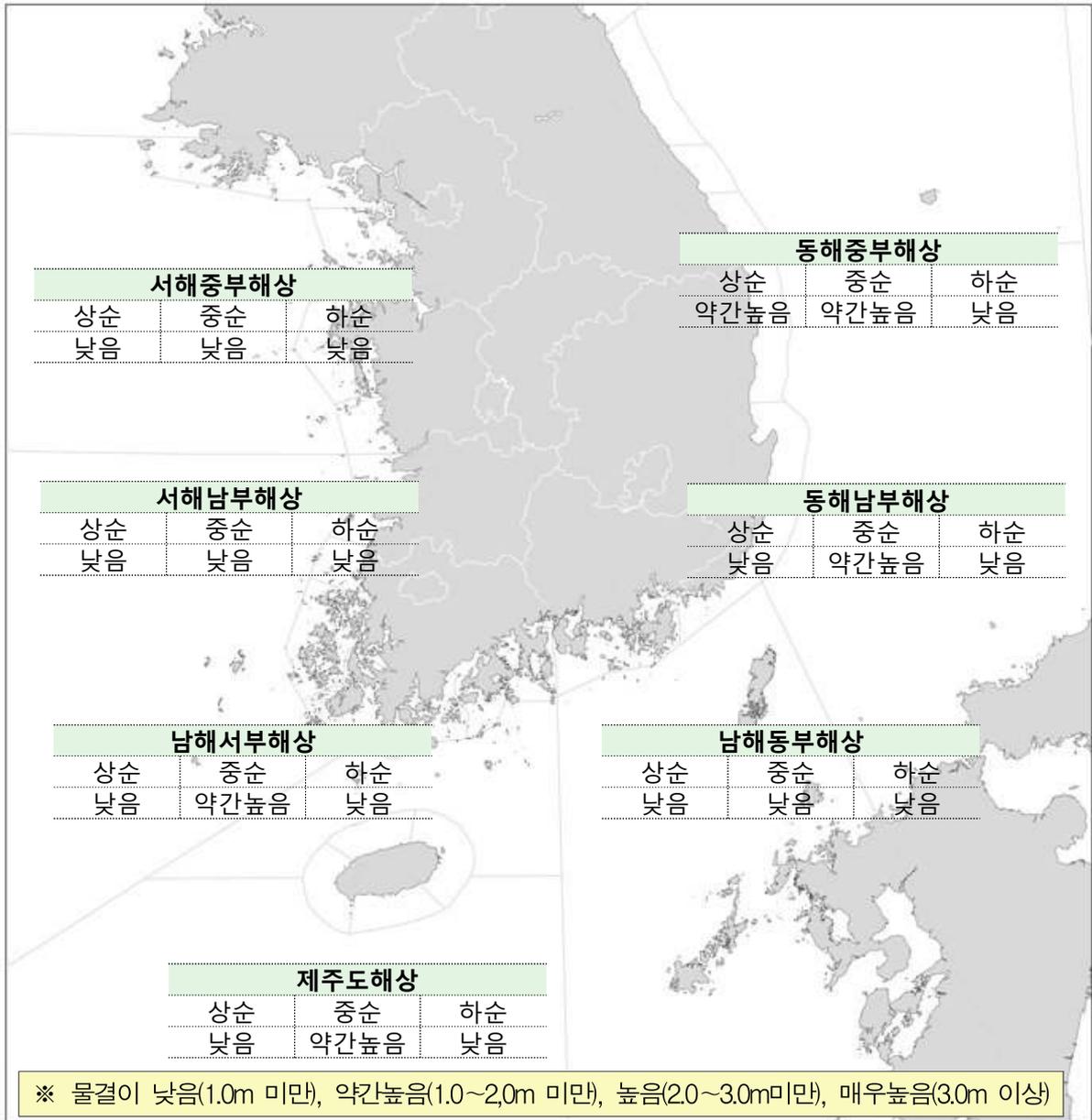
- 5월의 연안 월평균 수온은 동해 12~18℃로 평년보다 1~2℃ 높겠고, 서해 14~19℃, 남해 15~19℃로 평년에 비하여 1℃ 내외의 고온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예상 수온은 동해 : 12~18℃, 남해 : 15~19℃, 서해 : 14~19℃



**해황**

**해황**

▶ 5월의 해상 정보



※ 해상 정보는 해역별 최근 5년(2011~2015년) 평균 유의파고의 순별 평균값

▶ 최근 5년간('11~'15년) 5월 파고 관측값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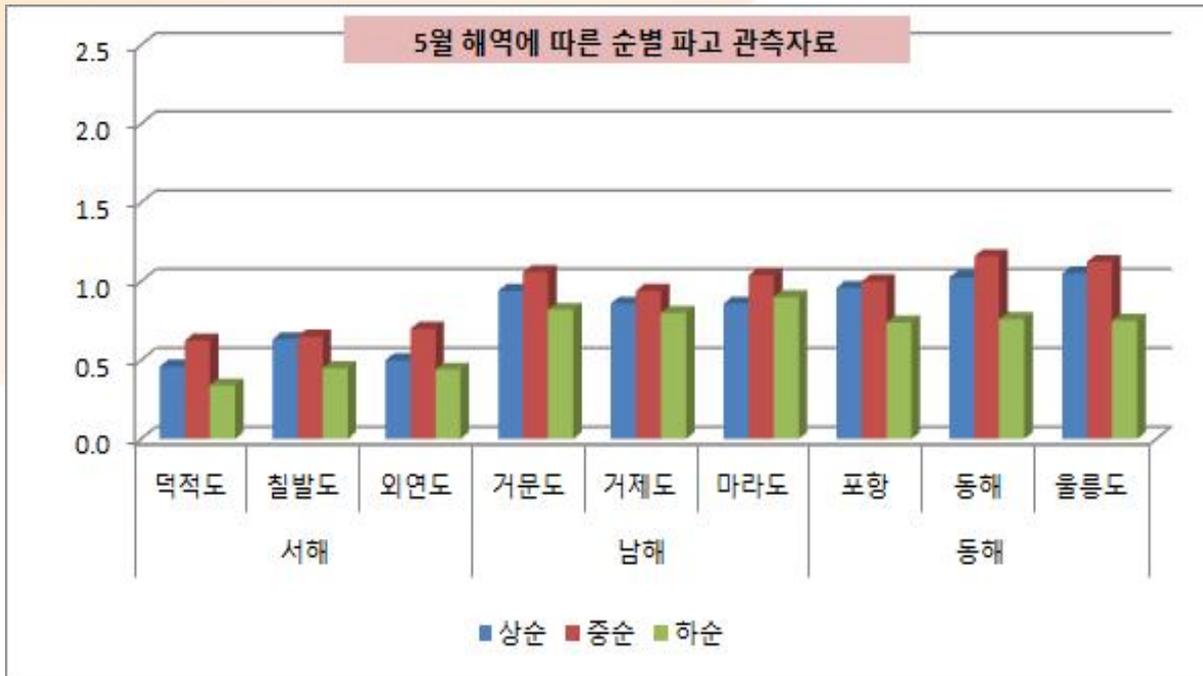


그림 1. 최근 5년간(2011~2015년) 4월 순별 파고 관측값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5월의 해역에 따른 해양기상부이의 파고관측 자료를 살펴보면, 동해중부해상(동해, 울릉도)은 파고가 약간 높았으며, 서해해상(덕적도, 외연도, 칠발도), 남해해상(거문도, 거제도), 동해남부해상(포항), 제주도해상(마라도)은 파고가 낮았음. 순별로 살펴보면, 동해중부해상(동해, 울릉도)은 파고가 약간 높았으며, 그 밖의 전 해상(덕적도, 외연도, 칠발도, 거문도, 거제도, 포항, 마라도)은 파고가 낮았음. 중순에는 남해서부해상(거문도), 제주도해상(마라도), 동해해상(동해, 울릉도, 포항)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고, 서해해상(덕적도, 외연도, 칠발도), 남해동부해상(거제도)는 파고가 낮았음. 하순에는 전 해상(덕적도, 외연도, 칠발도, 거제도, 거문도, 마라도, 동해, 울릉도, 포항)에서 파고가 낮았음. 5월에 파고가 가장 높았던 곳은 동해중부해상(동해)에서 1.16m(중순)이였음.(그림1)

※ 울릉도 부이 자료는 2012년도 신설로 인하여 해당년도부터 추가함.

▶ 최근 5년 및 2015년 5월 풍랑특보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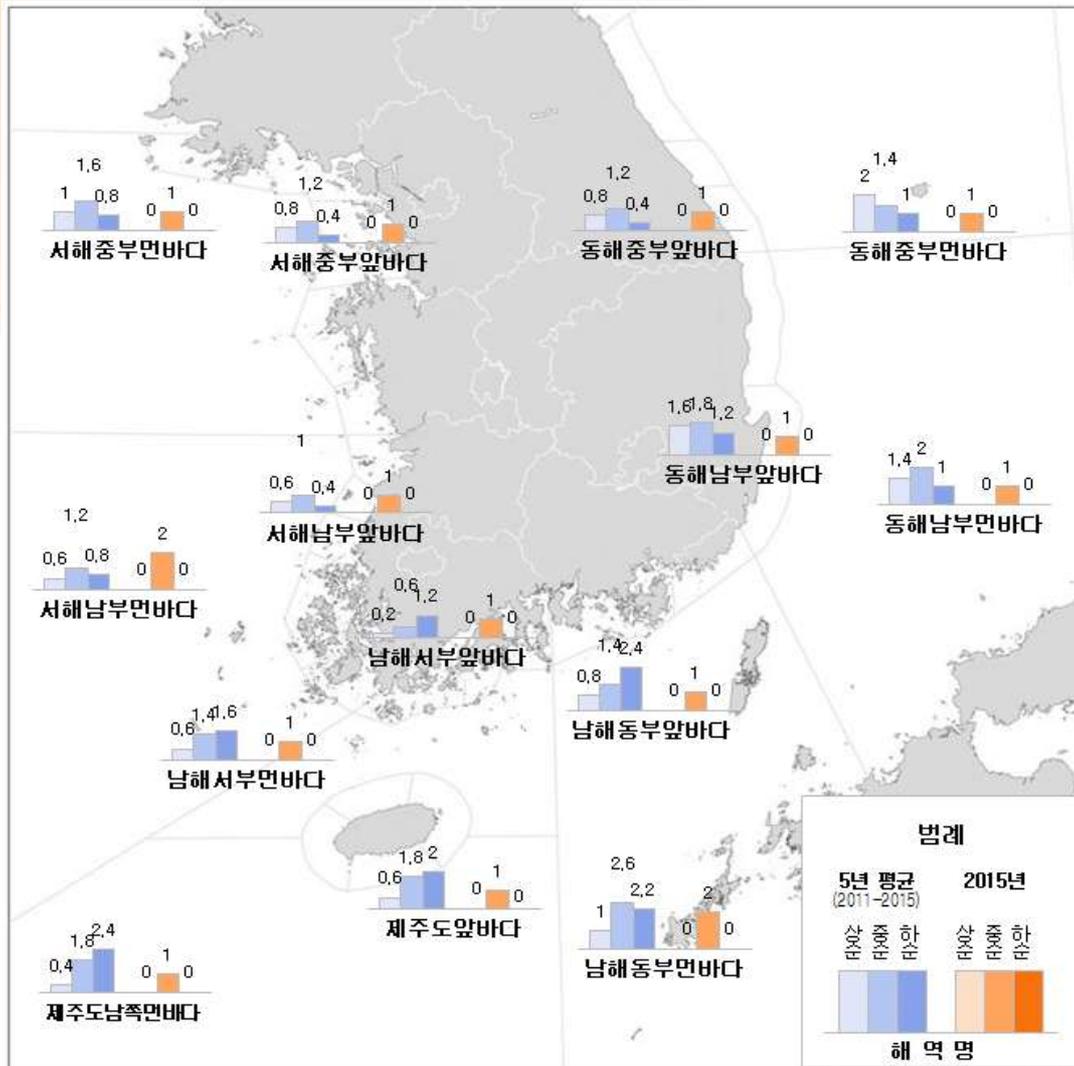


그림 2. 최근 5년(2011~2015년) 및 2015년 5월의 풍랑특보일수(상순, 중순, 하순)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5월의 풍랑특보 발표 일수는 평균 1.2일로 전월(4월 평균 2.5일)에 비해 감소하였음. 순별 특보 평균일수는 중순(1.5일)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하순(1.3일)이며, 상순(0.9일) 순으로 특보 일수가 나타났음. 지난해(2015년) 5월의 풍랑특보일수는 상순에 풍랑특보가 없어 최근 5년 평균 풍랑특보일수(0.9일)보다 적게 발표하였고, 중순의 풍랑특보일수는 1.1일로 최근 5년 평균 풍랑특보일수(1.5일)보다 적게 발표하였으며, 하순에도 풍랑특보가 없어 5년 평균 풍랑특보일수(1.3일)보다 아주 적게 발표하였음. 최근 5년간 5월에 풍랑특보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역은 남해동부남부먼바다에서 총 5.8일로 발표하였으며, 서해남부앞바다와 남해서부앞바다에서 2.0일로 가장 적었음.

### ▶ 지난해(2015년) 5월의 해황

2015년 5월에는 서해중부와 남해동부, 동해안은 남동에서 남서풍의 계열의 바람이,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제주도 해상은 북서에서 북동풍의 계열의 바람이 주로 나타났음. 풍속도 해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 해상에서 0.5~4.9m/s의 바람이 약 64.2%, 5.0~9.9m/s의 바람이 약 28.3%의 분포를 보였고, 10m/s 이상의 바람은 약 4.6%의 분포를 보였음.

앞바다에서 0.5~4.9m/s의 바람이 약 64.8%, 5.0~9.9m/s의 바람이 약 26.0%, 10m/s이상의 바람이 약 6.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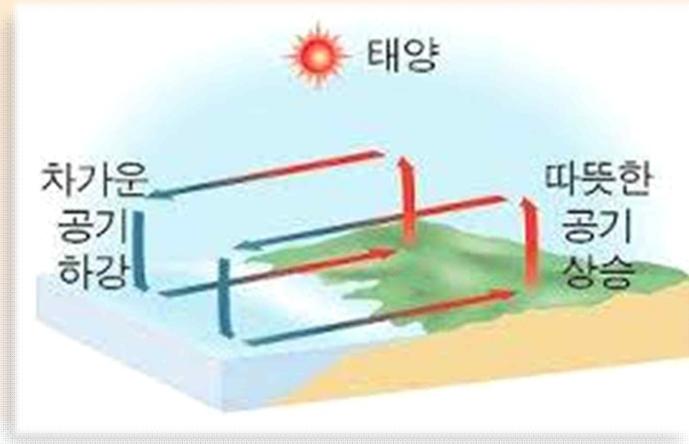
2015년 5월의 해역별 바람 상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해역		주풍계	풍속 분포(%)			
광역	국지		0.5~4.9	5.0~9.9	10.0~13.9	14.0≤
서해중부	앞바다	남동~남서	73.5	19.2	3.2	0.0
	먼바다	남동~남서	74.4	18.9	2.2	0.0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	63.4	25.8	6.2	1.3
	먼바다	북~북서	71.1	23.0	1.3	0.1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	51.8	35.3	11.1	0.8
	먼바다	북~북서	67.7	27.6	1.7	0.0
제주도	앞바다	북서	68.5	22.6	2.0	0.9
	남쪽먼바다	북~북서	49.9	42.5	6.1	0.0
남해동부	앞바다	남동~남서	73.5	25.8	0.7	0.0
	먼바다	남동	60.7	31.4	3.4	0.0
동해남부	앞바다	남동	53.0	34.1	9.8	0.8
	먼바다	남동	56.4	40.4	2.7	0.1
동해중부	먼바다	남동~남서	57.4	36.9	4.7	0.3
전해상			64.2	28.3	4.2	0.4

작년(2015년) 5월의 해역별 파고분포를 살펴보면, 전 해상 2.0m 이하의 파고가 약 94% 이상으로 낮은 파고의 비율이 높았으며, 3m 이상의 다소 높은 파고의 비율은 서해상만 약 4.7%를 보였고, 다른 해상에서는 0.5% 내외로 비율이 낮았음

해역구분	파고분포(%)				
	<1.0m	1.0~1.9m	2.0~2.9m	3.0~4.9m	>=5.0m
서해상	79.9	14.1	4.6	1.4	0.0
남해상	81.2	16.7	1.7	0.4	0.0
제주도해상	64.1	31.2	4.7	0.0	0.0
동해상	74.8	21.2	3.1	0.9	0.0
전해상	77.1	18.8	3.3	0.8	0.0

▶ 육상보다 강한 해상 강풍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주기적으로 통과하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내륙의 일교차가 커져 해륙풍이 강해지게 되면 육상보다 해상에서 강풍에 의한 영향을 더 받게 됨.

그림 3. 해륙풍 모식도

해륙풍은 고기압권 내에서 잘 발생하지만, 저기압이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진출하게 되면 크게 발달하여 천둥번개가 발생하고, 돌풍 현상이 많이 일어남. 이때는 강풍과 함께 높은 파도가 해안 지방까지 밀려와 선박의 충돌, 시설물 파괴 등 해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함.

특히, 5월까지의 강풍은 해상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는데, 육지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날에도 해상 교통은 바람으로 인해 두절되는 수가 많기 때문임. 날씨가 풀리면서 어선들의 해상 활동이 늘어나고, 해난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늘 존재하므로 기상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해상 안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해역에 따라 주의해야 할 바람 방향

해상에서의 강한 바람은 풍랑과 함께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 해역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풍향이 달리 존재함.

일반적으로 ①서해에서는 북서풍의 바람이 불 때, ②남해동부 해상에서는 남동풍과 남서풍, ③동해에서는 긴 거리를 불어 온 북동풍이 불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함. 반면 ④제주도 부근의 해양사고는 특정 방향의 바람이 아닌 여러 방향의 바람에 의해 발생함.



그림 4. 해역별 주의해야 할 바람방향

또한, ⑤섬이 많은 연안바다에서는 섬 주변 바람이 섬의 후면에 소용돌이 난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므로, 섬을 지나가는 바람보다 섬과 섬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이 훨씬 강하므로 소형 선박은 특히 주의해야 함.

따라서, 해상에서 강풍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상 특보(풍랑, 태풍)가 발표되면 조업 중인 어선과 항해 중인 선박은 날씨가 좋더라도 미리 대피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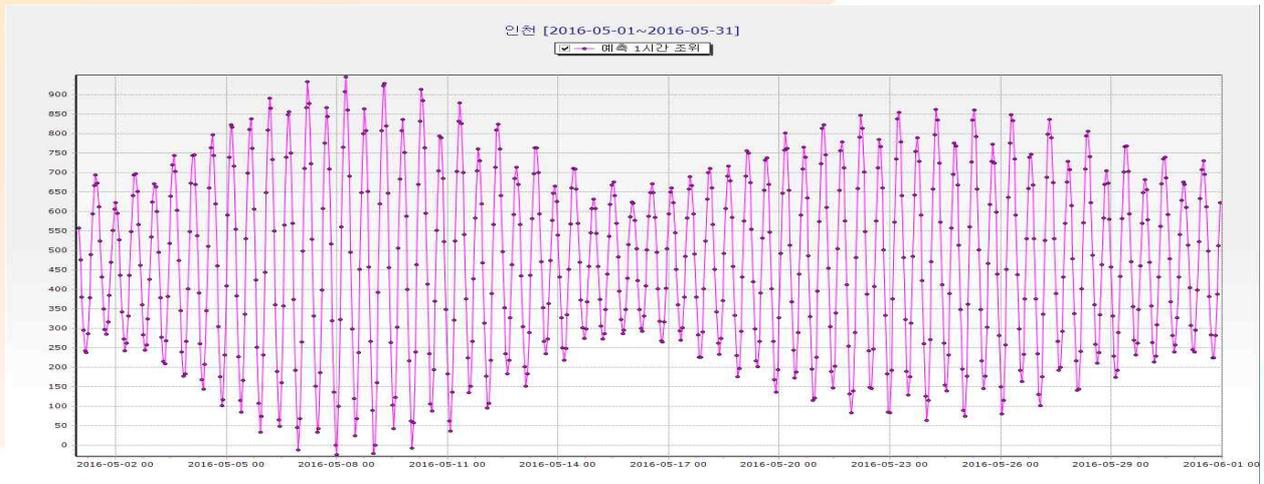
아울러, 해상에서는 기상상태가 나빠질 경우 무리한 운항은 자제하고, 기본항법을 준수하여 가까운 항구로 조속히 피항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을 제고하여야 함.

## ▶ 2016년 5월 조석 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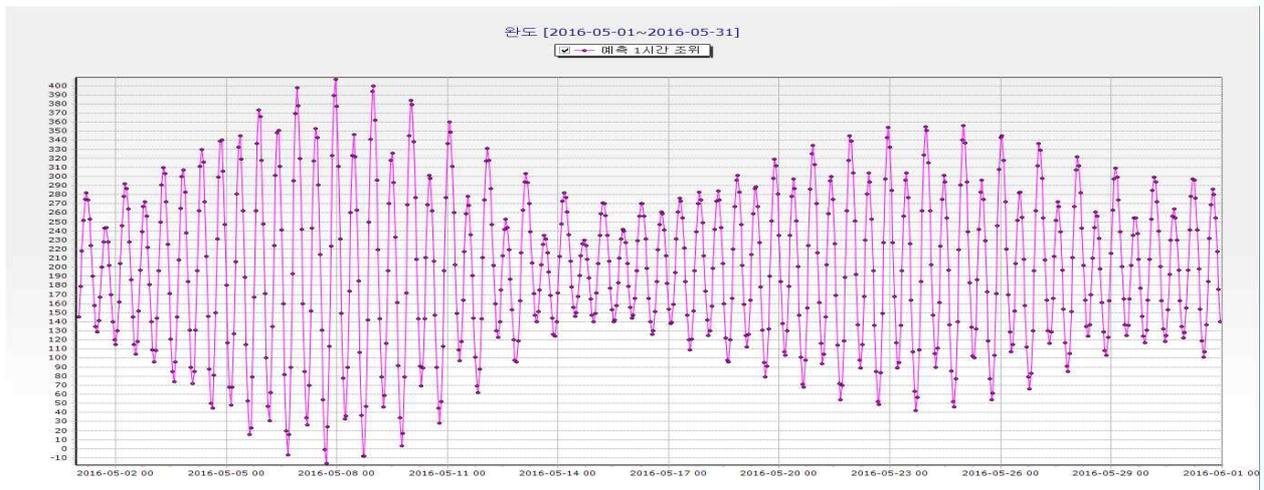
서해안의 인천은 5월 8일에 947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의 완도는 5월 7일에 408cm, 동해안의 포항은 5월 25일에 41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해역	지역	대조기(삭 5. 7)		대조기(망 5. 22)	
		고극조위(cm)	발생시각	고극조위(cm)	발생시각
서해안	인 천	933	05:03	848	05:08
	안 흥	704	03:58	637	04:15
	군 산	726	03:16	658	03:32
	목 포	491	02:21	438	02:34
남해안	제 주	297	23:28	262	23:29
	완 도	408	22:51	355	22:49
	마 산	209	21:36	183	21:25
	부 산	133	21:06	118	20:57
동해안	포 항	35	15:17	38	15:28
	속 초	31	14:58	33	14:59
	울릉도	30	14:23	35	1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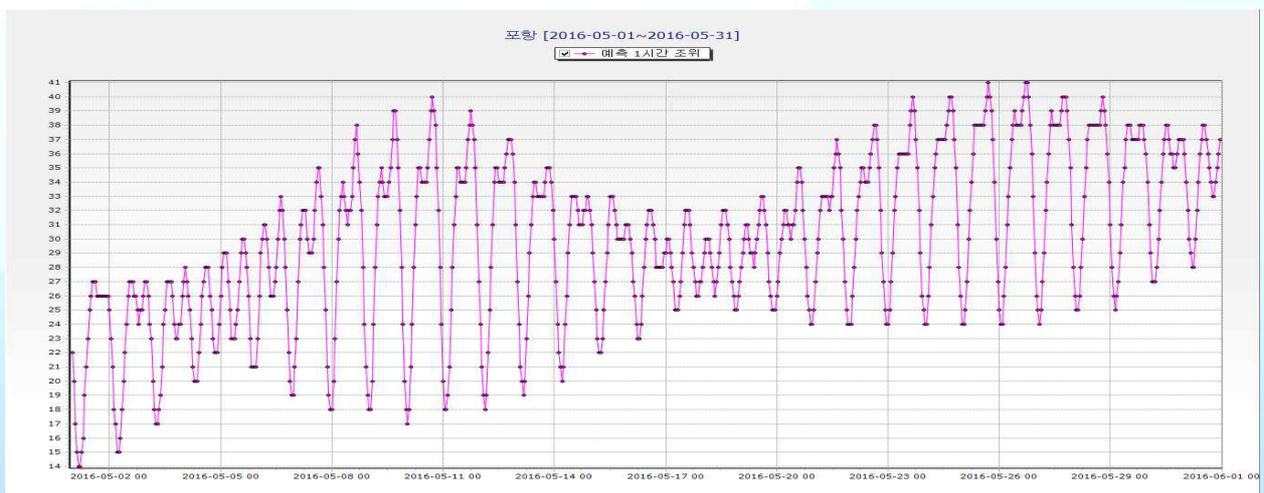
2016년 조석표(한국연안)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 ARS(1588-9822), 조석예보앱(Android)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6년 5월 서해안 인천지역 조석예보 >



< 2016년 5월 남해안 완도지역 조석예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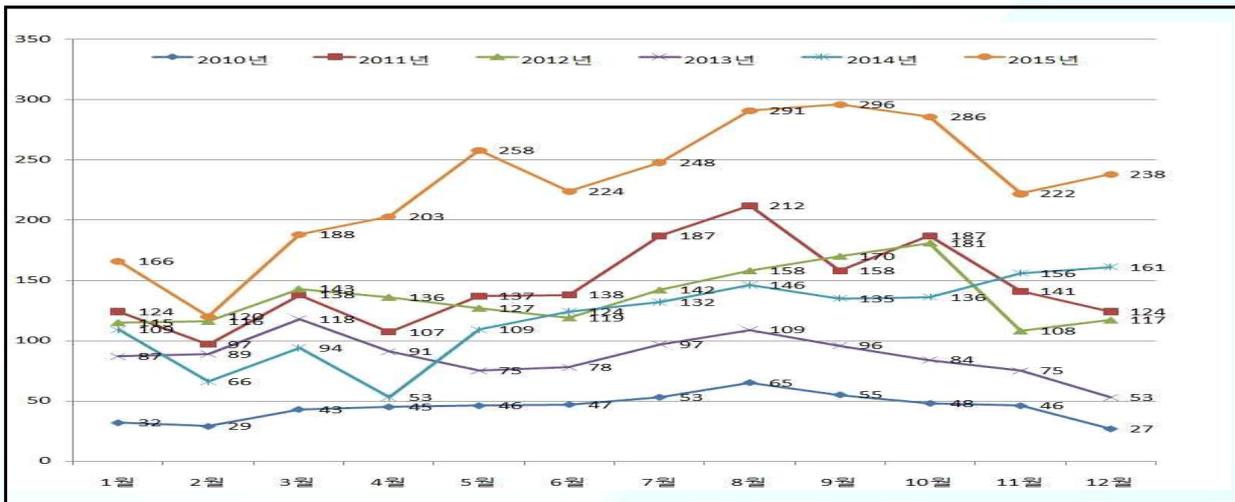
< 2016년 5월 동해안 포항지역 조석예보 >

## □ 해양사고 통계 (최근 5년간, '11.1.1 ~ '15.12.31)

- 최근 5년 동안 선박사고는 총 8,592척(58,908명)이 발생하여 선박 8,255척(96.1%) 및 선원 58,074명(98.6%)이 구조되고, 선박 338척(3.9%) 및 선원 834명(1.4%)이 사망(623명)·실종(211명)되는 인명피해 발생

구분	발생		구조		구조불능		인명피해	
	척	명	척	명	척	명	사망	실종
계	8,592	58,908	8,255	58,074	338	834	623	211
2015년	2,740	18,960	2,639	18,848	101	112	77	35
2014년	1,418	11,180	1,351	10,695	68	485	396	89
2013년	1,052	7,963	1,015	7,896	37	67	48	19
2012년	1,632	11,302	1,570	11,217	62	85	64	21
2011년	1,750	9,503	1,680	9,418	70	85	38	47

## ○ 월별 선박사고 현황



## ○ 해양사고 현황(5월)

- 최근 5년간 5월의 해상조난사고는 706척으로 4월 586척 대비 약 20%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사고 흐름을 보면 5~6월 이후 사고 급증 추세
- 주요 사고유형은 기관고장(201척), 충돌(84척), 추진기장애(76척) 순으로 발생하였고, 주요 발생원인은 운항부주의(214척)와 정비불량(211척)임

## 해양 안전정보(5월) - 해양긴급신고 전화

- 선박 운항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필요
  - 본격적인 성어기로 많은 어선이 출어, 해양사고 발생 개연성 증가
  - 기온 상승으로 해양 활동자가 증가하여 사고 발생 유형 다양화 예상
- 사전 사고 예방 활동 당부
  - 조업지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 멀리서 인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밝기의 등화 게양,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견시 철저
  - 선박 및 선원 안전을 위해 선단선 구성, 항해등, 조업 등 정박등 게양 및 항해장비 작동, 충돌의 위험 예상 시 사전 대피, 화재 예방 철저

## 해양사고 방지대책 - 해양긴급신고 전화

- 본격적인 행락철로 다수 시민이 승선한 여객선, 유도선 안전운항
  - 날씨가 가장 좋은 5월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이 바다를 찾음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개연성이 높은 여객선, 유도선 안전운항 철저
  - 여객선, 유도선은 출항 전, 기관·선체 사전 안전점검 및 운항시 충돌 및 해상 부유물에 의한 추진기 및 타기 고장예방을 위해 견시 철저
- 본격적인 성어기로 출항전 기관 및 선체의 정밀 점검·정비 후 출항
  - 많은 어선이 출어함에 따라 사고 개연성이 증대하므로 안전조업 철저 및 타 선박의 인지를 쉽게 하기 위해 조업, 항해등, 조업 등 점등 철저
- 짙은 안개로 시야 확보 곤란 및 줄음운항 사고 예방을 위해 출어 및 조업 시 충분히 휴식(견시 철저)
  - 해상에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므로 선박 간 충돌 예방 및 어망 등에 의한 추진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줄음운항으로 인해 자칫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충분한 휴식 후 조업 또는 항해(조타실 당직자는 항상 배치)
- 1인 조업선은 안전조업을 위해 가급적 선단선 편성
  - 해상에서 침수 등 돌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인 조업선은 필히 조업해역 및 귀항 일시 등을 선박 출입항 기관에 통보하고, 선단선 출어
  - 상호 인지 가능한 해역에서 조업하고 해상 추락 또는 실종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동의 착용 철저
- 침수 및 충돌사고에 특히 주의
  - 5월은 대체로 기상이 양호하여 풍랑주의보 발효 횟수가 적은 시기이나 침수사고와 충돌사고가 빈번하므로 주의
  - 짙은 안개에 의한 해양사고가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기적 등 무중항법 준수 및 조기에 피항

## 5월 해양사고 예보



제공: 해양안전심판원

### 최근 5년간 5월 중 사고발생 현황

◆ 최근 5년간 5월 해양사고는 총 641건(매년 약 128건) 발생

- 최근 5년간 5월에 발생한 해양사고는 ‘1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4년부터 증가, ‘15년에는 전년 대비 77.4% 증가(82건, 106→188건)

- \* 최근 5년간 연도별 5월해양사고발생현황(건) : ‘11(143), ‘12(115), ‘13(89), ‘14(106), ‘15(188)
  - 어선사고가 최근 5년간 5월 해양사고(641건)의 68.6%(440건)를 차지
  - 비어선의 해양사고 건수(201건)는 최근 5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해양사고 건수 중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음

### 5월 주요 해양사고 사례 및 대책

#### ◆ 여객선 기관손상사고

- (사고사례) 항해 중인 여객선에서 주기 관의 실린더블록과 실린더 헤드를 고정해 주는 스톱드가 절단되어 압축 가스가 분출됨에 따라 기관이 정지되는 사고 발생
  - (개선방안) 외국에서 제조된 기관의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기관 정비침을 한글 번역본으로 선내 비치하여 제조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점검·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고속기관에서 과도한 응력을 받는 개소에 대해서는 주기적·정밀적 점검·정비 철저
- (사고사례) 예인선이 부선을 접현하여 예인 하던 중 정박 상태로 잠수기 어업을 하던 어선과 충돌사고 발생, 어선 선체 일부 파공
  - (개선방안) 주기관 배기가스 온도 상승 등 주요 선박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고계통에 따라 즉시 회사에 보고하여 비상수리, 여객대피 및 예인 방안 등의 비상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는 전문가로 하여금 선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해야 함

★ 5월의 예상 수온

5월의 연안 수온은 동해가 12~18℃로 평년보다 1~2℃ 범위의 높은 수온분포를 보이고, 서해와 남해는 각각 14~19℃, 15~19℃로 평년에 비하여 1℃ 내외의 고온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동해 : 12~18℃ 분포
- 남해 : 15~19℃ 분포
- 서해 : 14~19℃ 분포

▶ 지난달 수온 분포

4월의 연안수온은 월평균 9.1~15.7℃ 범위로 분포하였음. 동해연안은 10.5~12.4℃, 남해연안은 13.2~15.7℃, 서해연안은 9.1~14.3℃의 분포를 보였음.

인공위성 자료로 분석된 한반도 주변 해역의 4월 표층 수온분포는 동해 연근해역은 11~15℃로 평년에 비하여 1~2℃ 범위의 높은 수온분포를 보였고, 남해 연근해역은 13~17℃로 평년에 비하여 1~2℃ 범위의 높은 수온분포를 보였으며, 서해 연근해역은 7~10℃로 평년과 비슷한 수온분포를 보임.

5월의 연안 수온은 동해가 12~18℃로 평년보다 1~2℃ 범위의 높은 수온분포를 보이고, 서해와 남해는 각각 14~19℃, 15~19℃로 평년에 비하여 1℃ 내외의 고온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어장 분포**

4월의 주요 어종별 어황을 살펴보면 갈치, 말쥐치, 망치고등어는 평년비 순조로웠으나 고등어, 꽁치, 전갱이는 평년수준이었으며, 멸치, 참조기, 살오징어는 평년비 부진하였음.

5월에 들면 멸치어업은 대마난류를 따라 봄철 산란을 위해 북상회유하는 어군을 중심으로 남해동부 및 동해남부 연안역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근해안강망어업은 연안저온수와 황해난류 사이에 형성되는 수온전선대를 따라 서해 중남부해역에서 아귀류, 참돔, 갈치 등을 대상으로 하며, 후반기로 갈수록 조업어장과 중심어장은 점차 북쪽으로 확장,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선망과 동해구외끌이 저인망 등은 5월 한 달 금어기로 인해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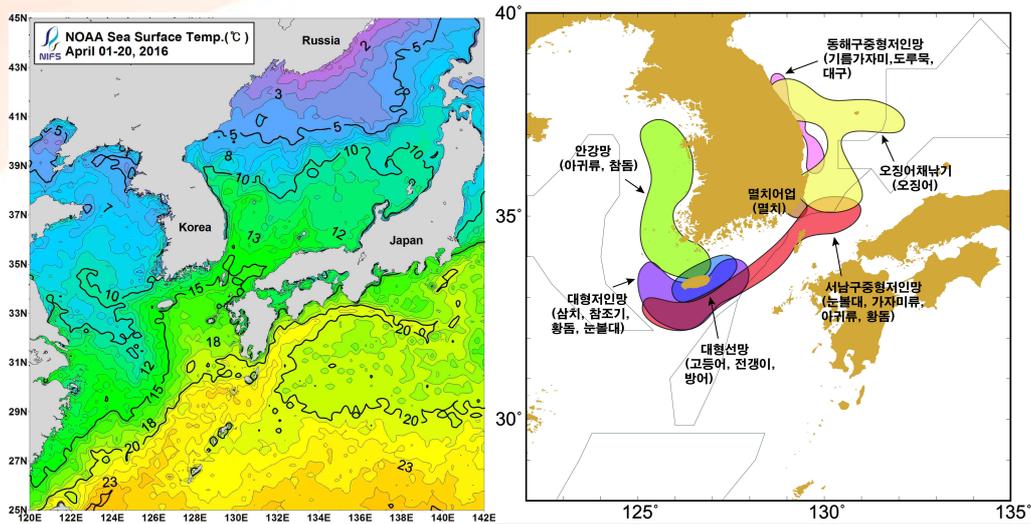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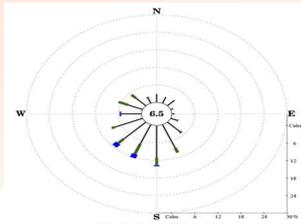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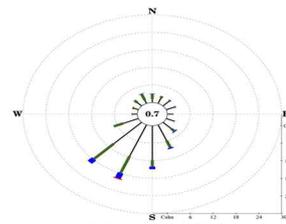
그림 5. 광역 수온 분포(위성) 및 어업별 예상어장도(5월)

고 등 어	고등어는 제주도 남서부해역을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겠으며, 제주도~대마도 사이해역에서도 부분적인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선망어업의 자율휴어기가 4월 20일부터 시작되어 5월 말까지 진행됨에 따라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살오징어	살오징어는 5월부터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이 금어기를 끝내고 조업을 재개하겠으며. 어장은 동해 중남부해역을 중심으로 형성되겠다. 정치망어업을 제외한 기타어업에서는 오징어 금어기가 5월 31일까지 이어진다.
멸 치	권현망어업의 금어기(4~6월)가 지속됨에 따라 자망어업에 의해 거제도~기장해역에서 산란 회유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으나, 전체적인 어황은 내유량이 많지 않아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갈 치	갈치는 제주도 주변과 서해 일부해역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겠으며, 어장으로의 내유량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어획물 중 미성어의 어획비율이 높아 소형개체를 대상으로 한 어획자제가 요구된다.
참 조 기	제주도 서부해역부터 서해 전역에 걸쳐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나, 전체적인 어황은 어군밀도가 높지 않아 평년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 타	꽂치, 말쥐치는 4월, 전년비 높은 어획량을 보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의 자원량을 유지하고 있어, 순조로운 어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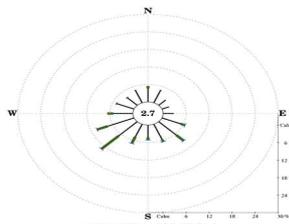
5월의 해상풍(해양기상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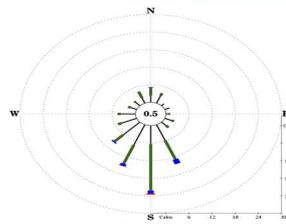
덕적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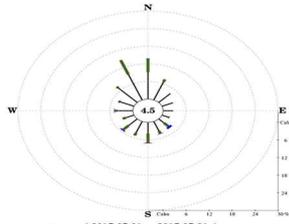
울릉도독도(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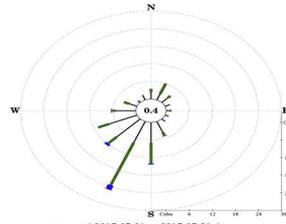
외연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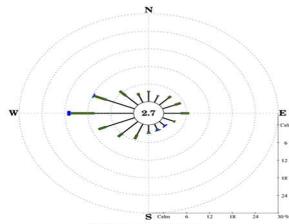
동해(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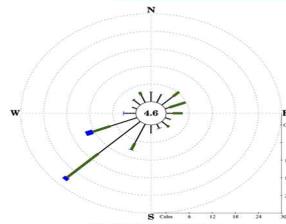
칠발도(서해남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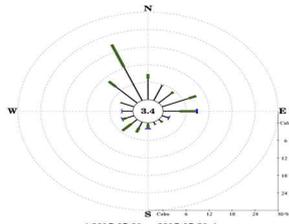
포항(동해남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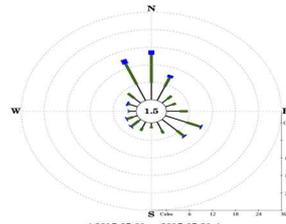
거문도(남해서부동쪽면바다)



거제도(남해동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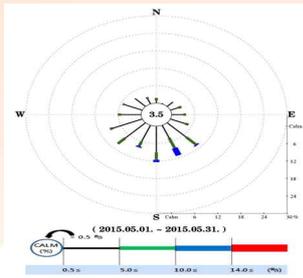
추자도(남해서부서쪽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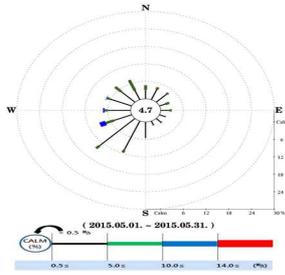
마라도(제주도남쪽면바다)

그림 6.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15년 5월, 바람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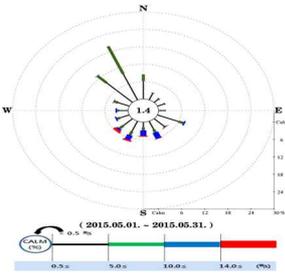
## 5월의 해상풍(등표기상관측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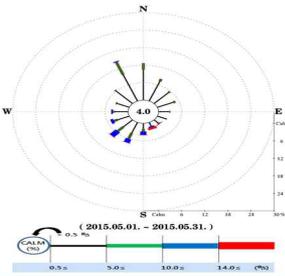
서수도(서해중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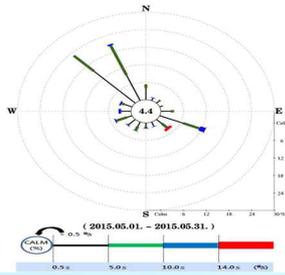
가대암(서해중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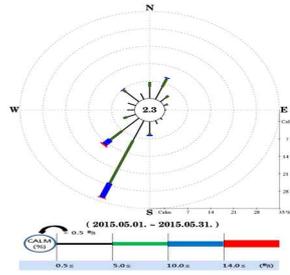
십이동파(서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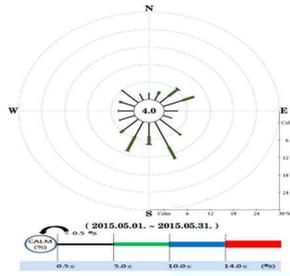
갈매여(서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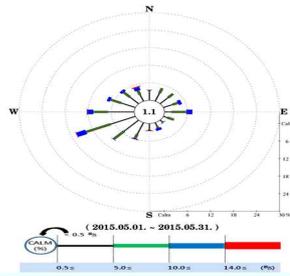
해수서(서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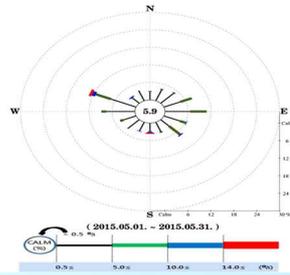
이덕서(동해남부앞바다)



광안(남해동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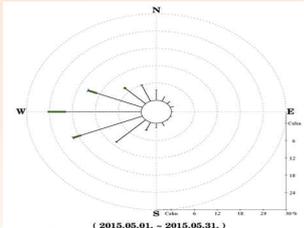
간여암(남해서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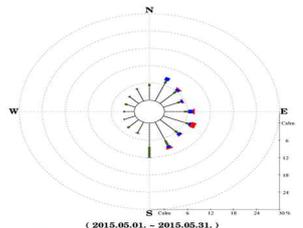
지귀도(제주도 앞바다)

그림 7. 등표기상관측장비 관측 해상풍('15년 5월, 바람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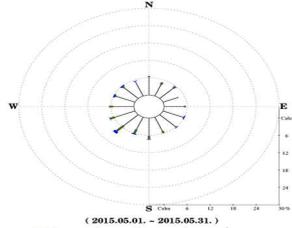
# 5월의 파랑(해양기상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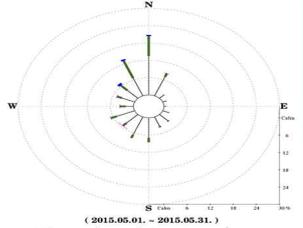
덕적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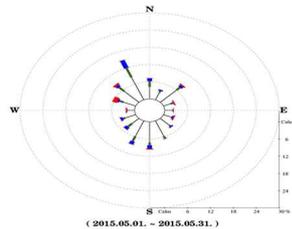
울릉도독도(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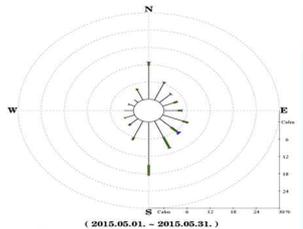
외연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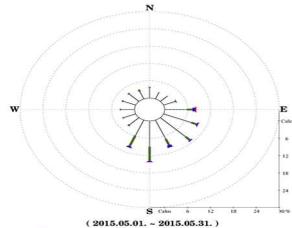
동해(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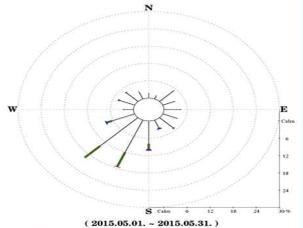
칠발도(서해남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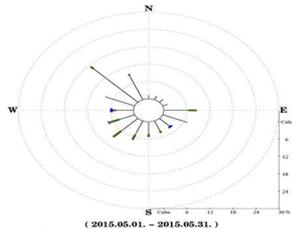
포항(동해남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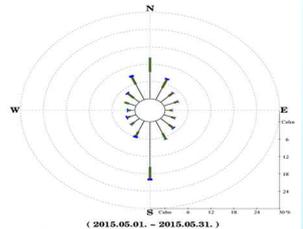
거문도(남해서부동쪽면바다)



거제도(남해동부면바다)



추자도(남해서부서쪽면바다)



마라도(제주도남쪽면바다)

그림 8. 해양기상부이 관측 파랑('15년 5월, 파랑장미)

## 【참고자료 2】

### ▶ 5월의 주요 해양사고일지

일 시	선 명	피 해	사 고 원 인
'15.5.26 12:30	<b>삼*97호</b> (예인선, 22톤, 승선원 2명, 강선)	2명 사망 선체전복	화물선(980톤, 가스운반선)예인 중 예인줄이 탈락되면서 균형을 잃고 전복 ※ 당시기상 : 남서풍, 4~6m/s, 파고 1m
'13.5.26 22:04	<b>홍**호</b> (벨리즈, 화물선 1413톤, 승선원 9명, 선령 10년)	화재	원인미상 화재 발생하였으나 자체 소화 불가 ※ 당시기상 : 남동풍, 10~12m/s, 파고 2~2.5m

